

종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5 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로 학교가 조용한데도 조그마한 일들이 많다 보니 그만 깜빡 했지요.

그래도 늦지 않게 선교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5 월의 소식을 나눕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거의 3 개월 동안 집에서 쉬던 일부의 학년(대학입시를 치러야하는 F-6 고등학교 졸업반) 과 대학교가 6 월 1 일부터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휴교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학년들도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 탕가신학교 소식.

= 6 월 1 일부터 (원래는 5 월 초) 2 번째 학기(term)가 시작됩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

@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1. 학생들 소식.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6 월 1 일부터 수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졸업식이 끝났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일로 학사일정이 변경되어 이제부터 약 1 개월정도 후(7 월 초부터)에 치러질 입시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열심으로 온라인 학업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학교 밖의 생활로 인하여 식어졌던 학업 열기가 다시 살아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집에서 휴교령 해제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휴교령 기간동안 변화된 새로운 학교환경.

= 식수개선

리빙 스톤 학교는 일반 상수도가 없어서 2 곳의 지하(약 100 미터)수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석회와 소금기가 있어 늘 마음이 편치 아니했는데 이번 기회에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2 만 리터의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어왔던 일이었는데 해결을 하니 마음 편안합니다.

= 교실 타일 작업.

중학교 본관 시멘트 바닥 4 개의 교실을 타일로 교체했습니다. 이 작업은 모든 교실(남은 12 개)이 끝날 때까지 매 방학때마다 조금씩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세면장 타일 작업과 주위 정돈

중동지방과 아프리카의 문화중에서 식사전에 손을 씻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서든지 식사를 하려면 손 씻는 물을 가져다주는 일이 큰 예의 중 하나입니다. 리빙 스톤 학교에도 손 씻는 곳이 있지만 시멘트로 되어 있어 청결하지 못하여 이번기회에 타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길도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주위환경이 더 깨끗 해졌습니다

= 잔디깎는 기계 (Lawn mower)구입

넓은 학교의 면적과 빨리 자라는 풀을 볼때마다 한정된 직원들로 어떻게 학교 환경을 가꾸어 가야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비록 작지만 깨끗하게 정원을 정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끗하게 정리되는 정원을 보면서 모두가 신기해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선교센터 마무리.

공사기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등만 설치하면 완공됩니다. 문제는 전등을 구하는 일인데 그래도 보기 좋은 전등을 구하려다보니 탕가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어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교회건축 완공

2 곳 교회의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서울 신성 장로교회의 후원으로 건축한 Moshi 지역 교회와 서울의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에 속한 권사님의 후원으로 탕가지역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건축된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건축에 함께해 주신 신성장로 교회와 권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대학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위하여.
2. 탄자니아도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화 될수있도록.
3. 학생들의 등록이 늦어지므로 오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4. 박선교사 내외의 건강을 위하여.

(박선교사 오른쪽 무릎 / 김은래 선교사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모든 선교회 식구들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020 년 5 월 31 일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드림.